

##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 요인분석: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중심으로

이 영 민<sup>1)</sup> · 이 수 영<sup>2)</sup>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유형중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학교 애착도 등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 5차 조사 자료와 설문지를 활용하여 변인들을 구성한 후 두 고교의 유형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별, 진로계획, 장학금 수혜 등의 개인차 배경변인들의 영향은 거의 없었으나 학점, 전과 편입계획 등의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의 직업이나 자녀대화 횟수 등의 가족배경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학력, 거주형태, 월 소득 등의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와 같은 학교배경은 적응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선택이나 학과선택 등의 변인은 일부 변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대학생활 적응, 외국어고, 과학고

## I. 서 론

고교 평준화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고등학생의 지적 능력과 발달을 고려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목고의 대표적인 예인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과학·수학이나 외국어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강영혜, 박소영, 정현철, 박진아, 2007). 그 결과 개인차원에서는 창의적인 능력과 특정분야의 적성과 소질을 발굴할 수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학습 선택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면서 전문성 높은 인재를 조기 양성함으로써 산업발달의 수요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조교수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그러나 사회적으로 과도한 수준의 교육열과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특목고는 초기 설립취지와는 달리 명문대학 입학에 위한 학원 혹은 중학교 사교육의 폐해를 일으키는 근원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다(김양분, 2008). 특정 고등학교 졸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계층을 형성하면서 부와 권력을 세습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에 입학하기 위한 학원 시장은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목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영혜, 정현철, 2007). 이는 특수목적고 졸업생의 명문대 입학과 질 좋은 취업시장의 진입 등과 같은 결과로 재생산되면서 우수한 중학생들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목적고를 졸업한 이들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교에 진학해서 어떠한 학업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는 힘들다(이수영, 이영민, 이재훈, 2009).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대학진학과 관련한 특목고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특목고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자녀 진학욕구, 특목고의 설립과 운영 실태, 특목고와 관련된 고교평준화 정책 및 수월성 교육의 검토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강영혜, 윤종혁, 김미숙, 이해영, 김남걸, 2005).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대학입시 및 정부의 사교육정책을 연계하는 바탕에서 특목고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특목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 및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드물 상황이다.

진학 목적과 가정배경에 따라 다양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대학교에서 이들이 여타 학생들과 지나친 갈등과 경쟁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대학생활에 적응하면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미시적인 특목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목고 정책을 개발하고 적절한 진로지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목고를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적절한 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정책담당자들은 새로운 고등학교 체제 및 대학 입시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특목고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정보제공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정보,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대학 전공별 재학의 대학생활 적응, 개인의 심리적 상태 및 부모와의 관계 측면에서의 대학생활 적응 등과 같은 주제와 더불어 대학 학생의 가정배경 등에 따른 적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유정이, 김수리, 2008). 또한 대학 입장에서는 입시를 통해 입학한 특목고 학생들에 대해 이들이 대학생활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고용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표적인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개인차 배경, 가족배경, 학교배경에 따라 대학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패널조사에서 적절한 변인들을 탐색하여 구성하고 이들의 영향력에 따라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학교 애착도 등과 같은 적응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고

자 한다(김영화, 김병찬, 2003). 이를 통해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의 양상을 살펴보고 좀 더 의미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특수목적고 학생과 대학진학

지난 30년간 고등학교 교육체제는 학생의 교육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적극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평준화 정책이 아닌 교육기회와 자원 분배의 균등성을 추구하기 위한 소극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유지되어 왔다(이수영, 이영민, 이재훈, 2009).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평준화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수용에 제한적이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개개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존 학교체제도 비판적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체제로 변화하면서 평준화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역효과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특정한 소질과 적성을 갖춘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여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에서 필요한 핵심인력을 조기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강영혜, 정현철, 2007). 그 결과, 예술과 체육 분야를 시작으로 과학과 외국어 분야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특히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는 각각 과학 분야와 외국어분야에서 영재수준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고교졸업 후 관련 분야 진출까지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전문성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까지 고려되어 설립이 타당화되었다.

특목고 설립과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학생의 입시 및 선발,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창의성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영철, 2003). 학생의 입시 및 선발 측면에서는 특목고가 당초 계획했던 설립목적과 달리 과학이나 외국어 등 특정 분야의 능력과 소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성적이 우수한 우등생을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는 특정한 능력을 갖춘 학생보다는 특정한 계층의 학생이나 사교육을 통해 훈련된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다. 창의성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기본 교육과정 외의 심화과정은 과학과 외국어 등 특정능력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대학입시에 적합한 심화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수목적고 설립과 운영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과 평준화교육의 보완과 수월성교육의 실시

라는 긍정적인 주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특목고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장기적인 검토와 분석이 없었기 때문이다(이수영, 이영민, 이재훈, 2009). 특히 특목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대학과 계열 선택과 진학,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 특목고 설립목적에서 추구했던 유관분야로 진출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진로개발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면, 현재와 같이 특목고와 사교육 관련성, 특목고와 대학 입시, 특목고 진학열 등과 같이 입시와 관련된 연구주제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목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및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영대(2008)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해서 특목고 졸업생에 관한 대학진학과 대학생활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특목고 졸업생들은 주로 전공분야를 고려하거나 수능 및 학교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선택하고 학문적 흥미나 적성을 고려해서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목고 졸업생들은 대학에서 복수전공과 부전공 등을 다수 이수하며, 해외연수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휴학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학 학점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일, 전수경, 정민승(2007)은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의과대학생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도를 연구하였는데, 특정과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의과대학 1,2학년 수준의 교과목에서 일반계고, 외국어고,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교육과정 이수가 이미 다른 계열의 학생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제시되었다.

## 2.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대학생활 적응(college adjustment)은 대학 환경 속에서 대학생 자신이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해당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다(유정이, 김수리, 2008). 대학생활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배경과 연관시켜 적응의 정도를 탐색하거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족변인(예, 부모의 학력 등)이나 학교생활에서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동료나 교수 등과 같은 인간관계 변인의 영향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과 이 도구들의 타당화 과정 등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적응의 유형을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차원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탐색해왔다. 출신고교 유형에 따른 적응문제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연구는 이영대(2008)의 연구가 있는데,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일부 문항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김지웅(2008)의 연구에 따르면 경력개발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형의 기능을 하는 대학생의 멘토링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멘토링은 이를 실시하는 멘토의 신뢰성을 매개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대학 선배나 경험

이 많은 동료 대학생들의 멘토링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의 적응뿐만 아니라 만족감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정과 유지현(2008)은 23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하면서 대학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매개변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리와 김수리(2008)는 선택-최적화-보상전략(SOC 전략)을 제시하면서 이들 전략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SOC 전략모형을 기반으로 성별, 학년별로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3, 4학년의 고학년 대학생보다는 1학년인 대학생의 경우 보상전략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보상-최적화, 의도적 선택의 전략을 선택하는데 반해, 남학생들은 최적화-보상전략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혁과 정영숙(2007)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활 적응 중 학업적응의 경우 재수유무, 전공, 지난 학기 성적, 종교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사회적응은 성별, 부모 동거, 전공, 지난 학기 성적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정서적응은 성별, 재수유무, 전공,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학 만족도는 재수유무, 전공, 지난 학기 성적, 종교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Toews와 Yazedijan(2007)은 인종과 성별에 따른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 인종과 성별과 무관하게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대학생활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의 지지를 받는 백인 여대생들은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age(2000)는 150명의 학생들을 코호트로 조사하였는데, 인종에 상관없이 학점은 대학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력이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권위적인 분위기와 가치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와의 라포 형성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동료들의 지원, 가족의 기대감도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 실태 및 적응정도가 학업, 진로, 가정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있다. 송동수와 한광령(2009)은 320명의 체육계열 학생들의 사회성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연구를 통해 사회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자신감이 높을수록 대학에서 사회적 적응은 높았고 나타났고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학업에 관한 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 등에 대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정경연, 유희정(2007)의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가족관계 지각과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 간 융합-개별화, 세대 간 친밀, 세대 간 간섭 등이 대학생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자아분화의 순으로 유의미한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와 김병찬(2003)의 연구에 따르면 공업계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경우 성

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을 기준으로 23세 이상의 고령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대학생월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복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더욱 잘 적응하고 있으며 가정배경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생월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으며 입학경로 분석을 통해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일반계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에 대한 애착도는 더 강하나 정서적 적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8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원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대상을 추출하였다. 교육고용패널은 2004년부터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6000명을 대표 표집하여 이들의 교육경험,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고용패널 1차 중학교 표집인원중 외국어고와 과학고 진학자 및 3차 조사 시 추가 표집이 이루어진 과학고와 외국어고 조사인원을 총합한 후 결손치를 제외하고 총 49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중에서 현재 휴학, 자퇴, 군입대 등으로 대학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인원과 학교급별로 과소하게 재학하고 있는 전문대학 및 특수학교 7명의 학생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388명을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표집대상의 성별은 남성 200명(51.5%), 여성 188명(48.5%)이었다. 출신 고등학교 유형으로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 154명(39.7%),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 234명(6.3%)이었다. 재학 중인 4년제 대학은 주로 서울(177명, 45.5%), 대전(120명, 3.9%), 경북(21명, 5.4%) 순으로 나타났고, 계열별로는 이학계열 재학이 36.08%, 공학계열 재학이 22.93%, 사회과학계열이 21.13%, 인문계열 재학이 1.82% 순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교육고용패널의 원설문지는 고등학생, 조기졸업자, 성인, 학교행정가, 교사(담임), 가구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생 대상 설문지는 학교생활, 가정생활, 여가생활, 사교육의 설문내용, 조기졸업자 대상 설문지는 학교생활, 현재 취업상태, 현 일자리의 특성, 취업의사

및 준비 등의 설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 대상의 설문지는 학교생활, 진학계획, 구직활동, 현재 취업상태, 현 일자리 특징, 취업의사 및 준비, 직장경력, 가정생활, 여가생활, 교육훈련, 진로계획, 일반적 특성의 설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행정가 대상의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의 설문내용, 교사 대상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과 학생평가 부분, 가구 대상 설문지는 가구원 현황, 교육환경, 문화생활, 학생의 보호자 등의 설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내용 중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내용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대학생활의 적응에 관한 변인들은 선행연구들(예, 김영화, 김병찬, 2003)을 기반으로 대학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하는 학업적 적응(academic adjustment), 교수나 동료 학생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 대학생활 중에 겪게 되는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인 정서적 적응(emotional adjustment), 대학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감인 대학 애착도(college attachment)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적응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성별, 연령, 휴학, 군복무 경험 등의 개인차 배경, 부모의 직업, 학력, 주거형태, 자녀대화 등과 같은 가족 배경, 출신고 유형, 입학방법, 대학과 학과선택 요인 등의 학교 배경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으로는 각 변인들은 원 설문에서 사용하였던 설문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표 1〉 설문 구성 및 내용

요소	설문조사 내용(변인)
적응 요소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학 애착도
개인차 배경	성별, 학점, 전과편입계획, 향후 진로계획, 장학금
가족 배경	부모 직업, 부모 학력, 주거형태, 자녀대화, 부모의 학교 만족도, 월평균 가구소득
학교 배경	출신고 유형, 입학방법, 대학 선택요인, 학과선택요인, 지도교수 면담

###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목적에 맞게 2008 교육고용패널의 특수목적고를 졸업하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 중 적절한 변인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육고용패널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들을 구성할 때, 각 변인 구성의 적절성 여부를 전문가 검증을 통해 파악하여 내용타당

도를 확보하였다. 또 신뢰도 계수를 점검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통계, 상관분석, Mahn-Whitney U 검정, 일원분산분석(ANOVA), Kruskal-Wallis H 검정 등을 활용하였다. 각 분석마다 이상치(outlier) 분석, 왜도, 첨도, 정규성 검사, 등분산성 가정 검정 등 예비분석(Preliminary analysis)을 실시하여 기본가정의 준수 여부를 파악한 후, 예비분석 결과에 맞는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또 일원분산 분석 후, 종속변인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을 경우, Scheffe 사후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PSS 13.0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초분석

각 배경 요소별로 변인들의 값을 기초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적응요소의 경우, 외국어고와 과학고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 애착도의 경우,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들보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감 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차 배경 중에서 미래 진로계획의 경우, 각 학교 유형별로 과반수 이상의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학금 수혜의 경우, 과학고 졸업 대학생들의 수혜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배경의 경우 두 고교 유형별로 보호자의 직업이 주로 관리직, 경영회계사무직, 연구 관련직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도 4년제 대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의 경우,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은 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은 주로 자기 집에서 통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배경 변인의 경우,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은 주로 일반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 대학 선택 요인과 학과 선택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은 사회적인 평판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주로 선택한 반면,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은 본인의 적성이나 성적 등에 따라 대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 면담의 경우에도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들보다 2배 정도 많이 지도교수와 면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교 유형별 기초분석 결과

		외국어고	과학고	
적응요소	학업적 적응 (5점 만점)	3.63	3.72	
	사회적 적응 (5점 만점)	3.33	3.28	
	정서적 적응 (5점 만점)	3.26	3.27	
	대학 애착도 (5점 만점)	3.72	4.11	
개인차 배경	성별	남성	39명 (25.3%)	161명 (68.8%)
		여성	115명 (74.7%)	73명 (31.2%)
	학점 (4.3점 만점)	3.46	3.44	
	전과편입계획 평균 횟수	1.9회	2.0회	
	미래 진로 계획	있다	47명 (3.5%)	64명 (27.4%)
		없다	16명 (1.4%)	20명 (8.5%)
		모르겠다	91명 (59.1%)	150명 (64.1%)
장학금 수혜	31명 (2.1%)	149명 (63.7%)		
가족 배경	보호자 직업	관리직	38명 (24.7%)	60명 (25.6%)
		경영회계사무직	32명 (2.8%)	42명 (17.9%)
		연구 관련직	16명 (1.4%)	34명 (14.5%)
		기타	68명 (44.1%)	98명 (42.0%)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4명 (2.6%)	1명 (.4%)
		고졸	35명 (22.7%)	23명 (9.8%)
		전문대졸	9명 (5.8%)	6명 (2.6%)
		4년 대졸	94명 (61.0%)	156명 (66.7%)
		대학원졸	12명 (7.8%)	48명 (2.5%)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10명 (6.5%)	3명 (1.3%)
		고졸	41명 (26.6%)	56명 (23.9%)
		전문대졸	7명 (4.5%)	6명 (2.6%)
		4년 대졸	89명 (57.8%)	154명 (65.8%)
		대학원졸	7명 (4.5%)	15명 (6.4%)
	주거 형태	자가	75명 (48.7%)	31명 (13.2%)
		자취, 하숙	30명 (19.5%)	31명 (13.2%)
		기숙사	41명 (26.6%)	170명 (72.6%)
		기타	8명 (5.2%)	2명 (.9%)
	자녀 대화	주 1~2회	3명 (1.9%)	1명 (.4%)
		주 3회 이상	109명 (7.8%)	141명 (6.3%)
월 1~2회		8명 (5.2%)	10명 (4.3%)	
년 1~2회		34명 (22.1%)	82명 (35.0%)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 (5점 만점)	2.71	2.85		
월평균 가구소득	414 만원	408 만원		
학교 배경	출신고 유형		154명	234명
	입학 방법	일반전형	119명 (77.3%)	196명 (83.8%)
		특별전형	35명 (22.7%)	38명 (16.2%)
	대학 선택 요인	사회적 평판	28명 (18.2%)	189명 (8.8%)
		본인 적성과 희망	49명 (31.8%)	27명 (11.5%)
		성적	54명 (35.1%)	13명 (5.6%)
		취업전망	10명 (6.5%)	1명 (.4%)
		기타	13명 (8.4%)	4명 (1.7%)
	학과 선택 요인	전공 사회적 평판	19명 (12.3%)	184명 (78.6%)
		본인의 적성	80명 (51.9%)	37명 (15.8%)
		성적	26명 (16.9%)	9명 (3.8%)
		취업전망	15명 (9.7%)	3명 (1.3%)
		기타	14명 (9.1%)	1명 (.4%)
지도교수 면담		1.2회	2.4회	

## 2. 배경 변인별 분석

### 가. 개인차 배경에 따른 적응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Mann-Whitney U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 변인에 따라 전체 적응 정도와 하위 적응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어고나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경우, 학교 애착도나 학업적 적응은 다른 적응 변인인 사회적 적응이나 정서적 적응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개인차 배경(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분석

( )안은 표준편차

	요인		n	학업적 적응	U	사회적 적응	U	정서적 적응	U	학교 애착도	U	전체 적응	U
	성별	성별		적응		적응		적응		적응		적응	
외국어고	남성	39	3.72 (.56)	1.604		3.41 (.58)	.397	3.33 (.82)	.300	3.87 (.71)	.353	3.58 (.49)	1.404
	여성	115	3.59 (.51)			3.30 (.64)		3.23 (.77)		3.66 (.92)		3.45 (.53)	
과학고	남성	161	3.73 (.42)	.425		3.26 (.67)	.789	3.27 (.72)	.172	4.14 (.61)	.973	3.60 (.44)	.340
	여성	73	3.70 (.43)			3.34 (.61)		3.27 (.70)		4.05 (.63)		3.59 (.44)	

미래 진로계획에 대한 적응 정도를 Kruskal-Wallis H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어고나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인 변인에 따라 평균 순위 정도에는 분포가 일부 달랐으나,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표 4〉 개인차 배경(미래 진로계획)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분석

	요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학교 애착도		전체 적응	
		df	H	df	H	df	H	df	H	df	H
외국어고	미래 진로계획	2	.169	2	4.371	2	2.690	2	2.598	2	1.862
과학고	미래 진로계획	2	2.042	2	.673	2	3.910	2	1.277	2	.412

평균 학점, 전과편입을 계획했던 횟수, 장학금 수혜 횟수와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은 평균학점이 높을수록 전체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학금 수혜 횟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경우 전과나 편입계획을 수립했던 횟수가 많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상관 정도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개인차 배경(평균학점, 전과편입계획, 장학금 수혜)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분석

구분	요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학교 애착도	전체 적응
외국어고	평균학점	.186**	.014	.084	.050	.134
	.전과편입 계획	.188**	.165*	.170*	.282**	.351**
	.장학금 수혜	.029	.036	.030	.021	.004
과학고	평균학점	.127**	.248**	.067	.034	.159*
	.전과편입 계획	.033	.067	.050	.039	.035
	.장학금 수혜	.092	.060	.065	.116	.071

주] \*\*\* P<.001, \*\* P<.01, \* P<.05

나. 가족 배경에 따른 적응

먼저 가족배경중 보호자의 직업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적응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직업에 따라 학업적 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보호자의 직업이 관리직인 대학생의 경우, 타 직업군(경영회계사무직, 연구직, 기타 직)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대학생들보다 학업적 적응이 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직업이 관리직인 경우 타 직업군 보호자의 대학생들보다 사회적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적응 변인들의 경우 평균상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족 배경(보호자 직업)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분석

			자승화 총합	자유도	자승화 평균	F	
외국어고	보호자 직업	학업적 적응	집단 간	2.539	3	.846	3.213*
			집단 내	39.502	150	.263	
	사회적 적응	집단 간	.502	3	.167	.419	
		집단 내	59.942	150	.400		
	정서적 적응	집단 간	.977	3	.326	.522	
		집단 내	93.622	150	.624		
	대학 애착도	집단 간	2.083	3	.694	.903	
		집단 내	115.380	150	.769		
	전체 적응	집단 간	.605	3	.202	.727	
		집단 내	41.602	150	.277		
과학고	보호자 직업	학업적 적응	집단 간	.421	3	.140	.780
			집단 내	41.377	230	.180	
	사회적 적응	집단 간	4.641	3	1.547	3.777**	
		집단 내	94.221	230	.410		
	정서적 적응	집단 간	1.045	3	.348	.691	
		집단 내	115.950	230	.504		
	대학 애착도	집단 간	.174	3	.058	.153	
		집단 내	87.437	230	.380		
	전체 적응	집단 간	.876	3	.292	1.512	
		집단 내	44.394	230	.193		

주] \*\*\* P<.001, \*\* P<.01, \* P<.05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정도의 경우, 각 하위변들별로 외국어고나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주거형태에 따라 전체 적응과 정서적 적응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들은 주로 자기 집에서 통학을 하는 대학생들이었다. 또한 자녀대화의 경우에도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경우 주 2-3회 이상 자주 부모와 자녀 대학생들 간에 자주 대화를 하는 경우 전체 적응과 정서적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경우, 주거형태나 자녀대화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적응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족 배경(부모학력, 주거형태, 자녀대화)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분석

	요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학교 애착도		전체 적응	
		df	H	df	H	df	H	df	H	df	H
외국어 고	아버지 학력	4	.201	4	.398	4	8.637	4	7.607	4	9.425
	어머니 학력	4	6.144	4	2.498	4	7.263	4	8.590	4	7.900
	주거형태	3	6.012	3	2.355	3	12.338**	3	5.338	3	8.269*
	자녀대화	3	7.508	3	5.262	3	16.754**	2	2.840	3	12.389**
과학고	아버지 학력	4	3.818	4	3.092	4	.843	4	2.700	4	1.863
	어머니 학력	4	6.512	4	5.702	4	8.823	4	5.953	4	8.580
	주거형태	3	.998	3	2.811	3	.571	3	2.328	3	.138
	자녀대화	3	.532	3	3.531	3	4.160	3	2.464	3	2.799

주] \*\*\* P<.001, \*\* P<.01, \* P<.05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월 평균 가구소득과 각 학교 유형별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상관 정도를 파악한 결과,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 자녀의 정서적 적응( $r=.134, p<.05$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대학생활 적응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부모의 경우,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 및 월평균 가구소득과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하위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학교 배경에 따른 적응

출신고 유형에 따른 적응정도의 경우, 전체 적응 정도변인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보다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학교 애착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입학배경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적응 하위변인들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대학생은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대학생보다 사회적 적응 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애착도의 경우 오히려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대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학교 배경(출신고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분석

( )안은 표준편차

	<i>n</i>	학업적 적응	<i>U</i>	사회적 적응	<i>U</i>	정서적 적응	<i>U</i>	학교 애착도	<i>U</i>	전체 적응	<i>U</i>
외국어고	154	3.63 (.52)	1.451	3.33 (.63)	.644	3.26 (.79)	.268	3.72 (.88)	4.42***	3.49 (.52)	1.852
과학고	234	3.72 (.42)		3.28 (.65)		3.27 (.71)		4.11 (.61)		3.60 (.44)	

주] \*\*\*  $P < .001$ , \*\*  $P < .01$ , \*  $P < .05$

〈표 9〉 학교 배경(입학 방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분석

( )안은 표준편차

	요인	<i>n</i>	학업적 적응	<i>U</i>	사회적 적응	<i>U</i>	정서적 적응	<i>U</i>	학교 애착도	<i>U</i>	전체 적응	<i>U</i>
외국어고	일반 전형	119	3.63 (.54)	.421	3.35 (.64)	.846	3.30 (.75)	.903	3.67 (.90)	1.084	3.49 (.53)	.121
	특별 전형	35	3.61 (.45)		3.28 (.58)		3.13 (.91)		3.87 (.78)		3.47 (.53)	
과학고	일반 전형	196	3.72 (.44)	.029	3.25 (.66)	2.250*	3.28 (.71)	.024	4.15 (.60)	2.191*	3.60 (.45)	.403
	특별 전형	38	3.74 (.32)		3.46 (.59)		3.25 (.70)		3.91 (.65)		3.59 (.42)	

주] \*\*\*  $P < .001$ , \*\*  $P < .01$ , \*  $P < .05$

대학선택과 학과선택에 따른 대학생활의 적응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선택 변인과 학과선택 변인이 전체 적응과 각 하위 적응변인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대학선택 변인에 따라 학교 애착도에 차이가 나타났고 학과선택의 경우 사회적 적응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대학과 학과의 사회적 평판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학생활에 보다 적절하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학교 배경(대학 선택, 학과선택)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분석

	요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학교 애착도		전체 적응	
		<i>df</i>	<i>H</i>								
외국어고	대학 선택	4	2.532	4	3.178	4	1.609	4	7.845	4	3.937
	학과 선택	4	7.750	4	4.428	4	1.441	4	4.346	4	3.904
과학고	대학 선택	4	1.448	4	7.095	4	5.718	4	11.440*	4	4.537
	학과 선택	4	6.786	4	11.946*	4	6.909	4	7.062	4	4.950

주] \*\*\*  $P < .001$ , \*\*  $P < .01$ , \*  $P < .05$

또한 지도교수 면담 횟수와 대학생활의 적응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면담횟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적응( $r=.213, p<.01$ ), 사회적 적응( $r=.185, p<.01$ )과 정서적 적응( $r=.282, p<.01$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면담횟수가 증가할수록 정서적 적응( $r=.118, p<.05$ )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교 유형별 분석

#### 가. 외국어고 졸업 대학생의 학교 적응

각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 외에 외국어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은 대학생활에 관한 전체적인 적응 정도를 포함하였고 모형 1단계에서는 개인차 변인들을 중심으로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모형 2단계에서는 가족 배경 변인들을 추가하였으며 모형 3단계에서는 학교 배경 관련 변인들을 추가하여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던 잠재적인 영향 변인들의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에서 설정한 세부변인이나 적응 정도에 관한 하위 변인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인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술적인 통계 수치를 분석한 결과, 해당 변인들의 영향 정도에 따라 적응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인들의 영향 정도에 관한 설명력을 통해 이러한 변인들이 외국어고 졸업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 대해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모형별 설명력 ( $R^2$ ) 비교해 보면, 관련 변인을 추가함에 따라 설명력이 0.160, 0.217, 0.264로 증가하였다. 즉, 추가한 변인 등에 의해 동일계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설명력이 증가하였는데, 해당 변인들의 영향에 관한 설명력은 최종적으로 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변인들이 전체적인 적응에 관한 영향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체 적응 변인의 하위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11〉 외국어고 졸업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2.262	0.428		2.313	0.593		2.348	0.591	
성별	-0.167	0.094	-0.139	-0.150	0.098	-0.125	-0.120	0.097	-0.100
학점	0.171*	0.081	0.171	0.156*	0.083	0.156	0.148*	0.082	0.148
진로계획	0.495**	0.111	0.337	0.457**	0.113	0.311	0.409**	0.115	0.278
미래 진로계획	-0.036	0.044	-0.063	-0.046	0.044	-0.080	-0.046	0.044	-0.079
장학금 수혜	0.051	0.103	0.039	0.072	0.104	0.055	0.094	0.105	0.072
보호자 직업				-0.017	0.023	-0.055	-0.007	0.024	-0.023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아버지 학력				-0.025	0.064	-0.048	-0.029	0.064	-0.057
어머니 학력				0.072	0.061	0.152	0.080	0.060	0.168
거주 형태				0.011	0.025	0.036	0.015	0.025	0.046
자녀대화				-0.151*	0.063	-0.195	-0.159*	0.063	-0.206
자녀의 학교 만족도				0.012	0.025	0.043	0.014	0.025	0.049
월평균 가구 소득				0.000	0.000	-0.095	0.000	0.000	-0.101
입학 전형방법							0.041	0.097	0.033
대학선택 요인							-0.071	0.038	-0.151
학과선택 요인							0.003	0.039	0.006
지도교수 면담횟수							0.057*	0.024	0.184

주] \*\*\* P<.001, \*\* P<.01, \* P<.05

### 나. 과학고 졸업 대학생의 학교 적응

각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 외에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앞서 설정한 외국어를 졸업한 대학생의 적응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던 잠재적인 영향 변인들의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외국어고 졸업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변인과 유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각 모형별 설명량 ( $R^2$ ) 비교해 보면, 관련 변인을 추가함에 따라 설명량이 0.032, 0.068, 0.073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변인들의 영향에 관한 설명력은 최종적으로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바와 유사하게 해당 변인들이 전체적인 적응에 관한 영향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체 적응 변인의 하위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12〉 과학고 졸업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3.090	0.403		3.487	0.537		3.461	0.559	
성별	-0.013	0.062	-0.013	-0.004	0.063	-0.005	-0.001	0.066	-0.001
학점	0.134*	0.060	0.149	0.120*	0.062	0.134	0.114*	0.064	0.128
전과계획	0.095	0.160	0.039	0.035	0.164	0.015	0.040	0.165	0.017
미래 진로계획	-0.034	0.033	-0.068	-0.040	0.034	-0.080	-0.039	0.035	-0.078
장학금 수혜	-0.031	0.062	-0.034	-0.037	0.064	-0.040	-0.041	0.066	-0.045
보호자 직업				-0.037*	0.018	-0.143	-0.036*	0.018	-0.142
아버지 학력				-0.042	0.045	-0.077	-0.046	0.046	-0.085
어머니 학력				0.054	0.040	0.118	0.055	0.042	0.120
거주 형태				-0.014	0.026	-0.037	-0.015	0.026	-0.040
자녀대화				-0.073*	0.056	-0.099	-0.077*	0.057	-0.105
자녀의 학교 만족도				0.015	0.020	0.072	0.015	0.020	0.072
월평균 가구 소득				0.000	0.000	-0.084	0.000	0.000	-0.081
입학 전형방법							0.046	0.101	0.038

	모형 1			모형 2			모형 3		
	<i>B</i>	<i>SE</i>	$\beta$	<i>B</i>	<i>SE</i>	$\beta$	<i>B</i>	<i>SE</i>	$\beta$
대학선택 요인							-0.029	0.074	-0.050
학과선택 요인							0.013	0.084	0.019
지도교수 면담횟수							0.012	0.013	0.062

주] \*\*\*  $P < .001$ , \*\*  $P < .01$ , \*  $P < .05$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5차 교육고용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의 평균점수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성별, 미래 진로계획, 장학금 수혜와 관련된 변인들이 전체 적응 및 하위 적응변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대학진학 전 이미 명확한 진로목표와 직업관을 형성하고 입학한다고 볼 수 있고, 특수목적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성적이 입학 당시부터 최상위권을 형성하는 학과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한상근, 진미석, 이영대 등, 2001).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은 평균학점이 높을수록 전체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학한 학과의 영향 혹은 대학생활의 성실도와 학습욕구 등과 같은 학습스타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김영화, 김병찬, 2003). 기존 선행연구(예, 유정미, 김수리, 2008)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학점은 대학생활의 적응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과와 편입과 같은 계획이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구결과의 경우, 전과나 편입을 위한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업성취, 정서적 안정, 가족지지 등과 같은 요인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전과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적, 학업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요인들이 학업적 적응과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족배경의 경우, 보호자의 직업이 높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보호자 직업이 주로 관리직, 경영회계사무직, 연구직 등 직업서열상 상위직종에 다수가 종사하고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또한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학력 구성비와 달리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정도를 파악하는데 한계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예, 김영화, 김병찬, 2003; 이숙정, 유지현, 2008)에서 표집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학력 구성비와 상반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자녀대화의 경우는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박범혁, 정영숙, 2007). 주거형태의 경우, 다수의 외국어고 졸업 대학생이 집에서 통학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수의 과학고 졸업 대학생들이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학교배경의 경우, 입학전형방법이나 대학 및 학과 선택에서 일부 변인들 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다수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의 진학계획 수립이나 진로 목표 설정에 따른 진로이동 등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한상근, 진미석, 이영대 등, 2001). 또 지도교수와 대화횟수와 대학생활 적응에는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어고와 과학고 졸업생들과 지도교수가 자주 상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수록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김지웅(2008)의 연구나 송동수와 한광령(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도교수, 동료학생, 선배 등의 멘토링이나 상담이 학업수행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유형들중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진로와 학업적응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결과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 피험자에 대한 개인배경이나 능력 정도에 대한 통제가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가족과의 관계 부분도 형제나 자매와 같은 동거 가족들에 대한 변인 등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으며 학교배경 변인의 경우에도 학교 소재지나 학과계열 유형 등의 영향도 향후에는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진학과 대학생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특목고 대학생들에 관한 연구내용 외에도 이들의 취업준비, 입직 및 직장 적응, 사회적 관계 형성 등까지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면 특목고 학교효과에 관한 거시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인 결과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 참고문헌 ❖

- 강영혜, 박소영, 정현철, 박진아(2007). 특수목적고등학교 정책의 적합성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혜, 윤종혁, 김미숙, 이해영, 김남걸(2005).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III): 학교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혜, 정현철(2007). 특수목적고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특수목적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2008). 특수목적 고등학교 효과의 세 유형. KEDI 교육현안 컬럼.
- 김영철(2003).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체제연구(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화, 김병찬(2003). 공업계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관련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2(3), 21-42.
- 김지용(2008). 대학생들의 멘토링 기능이 대학생활적응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외식전공 학생들의 Mentor에 대한 신뢰에 따른 차이비교를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11(2), 77-101.
- 박범혁, 정영숙(2007).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45-57.
- 박원일, 전수경, 정민승(2007).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의과대학생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한국 의학교육, 19(2), 101-110.
- 송동수, 한광령(2009). 체육계열 학생의 사회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2(1), 49-60.
- 유정이, 김수리(2008). SOC 전략과 대학생활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11-1225.
- 이수영, 이영민, 이재훈(2009).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전공계열 진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과학고와 외국어고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7(2), 1-25.
- 이숙정, 유지현(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 이영대(2008). 졸업한 고등학교 유형별 대학생의 대학생활과 진로비교. 제1회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심포지엄 발표대회.
- 이정희, 정경연, 유희정(2007). 세대간 가족관계와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5), 407-429.
- 한상근, 진미석, 이영대, 임연, 이지연, 이양구, 정윤경(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Strage, A. (2000). Predictors of college adjustment and succes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Southeast-Asian-American, Hispanic and White students. Education, 120(4), 731-742.
- Toews, M. L. & Yazedjian, A. (2007).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College Student Journal, 41(4), 891-900.

## ❖ Abstract ❖

### Investigating the Influential Variable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the Enrolled College Students who Graduated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nd Science High Schools

Lee, Youngmin(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e, Soo-Young(KRIVE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ollege adjustment of students who graduated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nd science high schools in terms of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emotional adjustment, and college attachment. We adopted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data and analyzed the impacts of their variables. In the result, we found that the college grade point and transfer planning to other universities variables had impacted the adjustment level of the subjects nevertheless the other personal variables had lack of relations. In family-related variables, the types of parents' job and conversation between the parents and the subjects had impacted on the college adjustment levels, nor parents' academic career, housing types, and monthly incomes. Finally, the number of counselling time among the advisory professors and the subjects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s' adjustment.

**Keywords :** College Adjustment,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cience High School